

환자를 다루는 방법

돌봐주는 사람 본인은 일생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간호할 생각을 하지만, 무심코 환자를 잘못 다루는 경우가 있다.

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무심결에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자기가 움직이는 속도를 기준으로 간호하기도 한다.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들은 잘못된 지식을 간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.

① 병의 초기

환자를 지나치게

아이 취급하면

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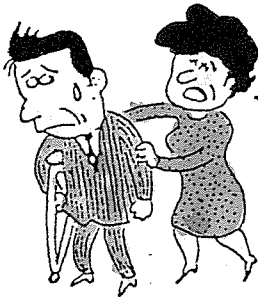
② 병자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.

어떠한 장애가 남는다
하더라도, 그것이 생명을
위협하거나 병을 악화시키지는
않는다. 이것은 극복할 수
있는 장애인 것이다.



③ 장애인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.

뇌졸중으로 운동능력이나
지적능력이 전보다 저하되었다
하더라도 좋은 점을 강조해서
하루빨리 원래의 능력을
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
도와주어야 한다.



다른 사람들
말에 신경쓰지
말고 힘내세요!



④ 귀머거리에게 말하는 것 같은
대화방법은 좋지 않다.

언어장애가 있다고 해서
청력장애가 수반되는
것은 아니다. 이것은
청력 중추가 뇌의 좌우에
있는 것을 안다면
쉬울 것이다.

